

#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무한결스’ 멤버 전원 교체

현영·안명미 등 6명 확정

여성관 ‘무한도전’을 표방한 MBC에브리원의 ‘무한결스’가 멤버 전원을 교체하며 새 출발에 나선다.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은 그 동안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황보, 백보람, 정가은 등 6명의 여성 연예인으로 구성됐던 ‘무한결스’의 새 멤버를 현영, 안명미, 정주리, 솔비, 김나영, 김은정(쥬얼리) 등 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멤버로 구성된 ‘무한결스’는 내달 4일 자정에 첫선을 보인다.

## “진짜라면 사회부 기자 해보고 싶다”

“여주인공 교체로 솔직히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괜찮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준기는 최근 서울 역삼동에서 진행된 MBC 새 수목 드라마 ‘히어로’(극본 박지숙, 연출 김경희)의 촬영 현장에서 급작스러웠던 여주인공 교체에 대해 이같이 털어놨다.

본래 ‘히어로’의 여주인공을 김민정이 맡기로 했으나 드라마 ‘2009 외인구단’ 촬영 당시 당한 어깨 부상이 석회화건염(뼈에서 석회질이 새어나와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는 질병)으로 악화하면서 지난 3일 하차했다. 대신 윤소이가 경찰대학을 수석 졸업한 강

런지 조금 자는 것에 적응돼 체력은 아직까지 문제 없다”며 옆에서 거들었다.

이준기는 ‘히어로’에서 ‘삼류’ 신문사 기자 진도혁 역을 맡아 한국 최고 기업이면서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대세일보’를 파헤치는 열혈 기자를 연기한다.

그는 자신이 진짜 기자였다면 발로 뛰며 사회의 부조리를 캐는 사회부 기자를 해보고 싶었다며 연기를 위해 신문 칼럼과 기사들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 감독님께 드라마에서 이런 사건을 다뤄보자고 건의를 했지만 감독님



‘히어로’ 삼류 기자역 이준기

### 이준기

#### “여주인공 교체로 솔직히 힘들고 혼란스러웠죠”

력타임 주재인 역으로 긴급 투입됐으며 이 때문에 본래 11일 예정이었던 ‘히어로’의 첫 회 방송이 18일로 한 주 연기됐다.

그는 “민정 씨가 빨리 완쾌해서 촬영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불미스럽게도 방영 전에 상황이 발생했다. 괜찮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소이 씨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 사태를 빨리 추스르고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상대 배우인 윤소이에 대해 “소이 씨가 체력도 좋고 액션 연기도 돼서 현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덕분에 나도 더불어 힘을 내고 있다”며 좋은 호흡을 자랑했다.

이날 이준기와 함께 촬영한 윤소이도 “여주인공의 촬영 분량이 아직 많이 남아 정신 없이 찍고 있다. 그래서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놓치는 것은 없을까 걱정된다. 하루 3~4시간 밖에 못 자지만 사람 몸이 간사해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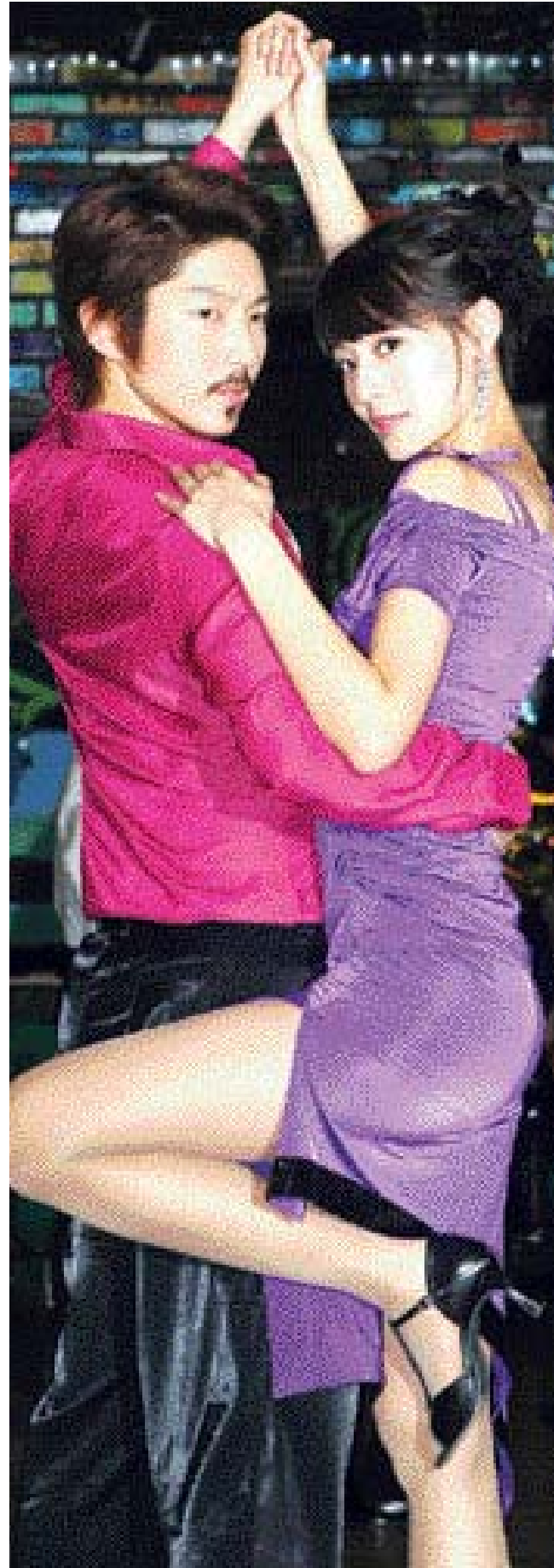
은 피해자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꺼내기 싫어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 ‘히어로’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의협심에 화가 불끈불끈 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준기는 경쟁작인 KBS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청률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작인 ‘아이리스’의 시청률이 20% 대일 때는 불안하고 부담이 컸지만 30%를 돌파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현장에서 즐겁게 일한다면 작품이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시청률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작품 자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기는 최근 논란이 된 ‘무저 발언’과 관련해 “내 키가 178cm니까 나도 ‘무저’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히어로’의 이준기와 윤소이(오른쪽)



#### ‘선덕여왕’ 칠속역 안길강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덕만. 다행이다”

MBC 월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의 명을 받아 덕만공주를 죽이기 위해 중국과 서역, 서라벌을 오가며 추격해왔던 칠속은 최후의 순간, 덕만공주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칠속과 석품의 난이 실패한 뒤 덕만공주 앞에서 최후를 맞은 칠속 역의 안길강(43)을 경기도 용인 촬영장에서 만났다. 마지막 촬영을 막 끝낸 그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묻어나는 웃음을 지었다. 몇십 년간 이어온 추적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덕만공주에 대한 원망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는 인터뷰 중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기도 했다.

“다시 ‘선덕여왕’을 찍는다고 해도 저는 칠속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실제로는 칠속처럼 무언가를 끝까지 쫓

#### ‘찌질네이터’ 별명 생겼지만

#### 다시 해도 ‘칠속’ 할 겁니다

아 이뤄내거나 끈기가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하하. 무뚝뚝하지만 속이 깊은 칠속은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역할이네요”

이렇듯 드라마에서 목숨을 다해 덕만공주를 쫓지만 결국 모두 실패해 ‘찌질네이터’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그는 전했다.

명색이 신라 최고의 화랑인데 어린 덕만공주와 연약한 소화한테 물리고 맞는다라는 의미에서 ‘찌질이’, 그리고 영화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한다는 점에서 ‘터미네이터’가 합쳐진 의미란다.

“찌질네이터”를 위해 연초부터 중국 사막에서 촬영한 만큼 에피소드나 뒷이야기가 많을 듯도 하다.

“아무래도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모래 바람 맞으며 촬영한 게 가장 기억에 남죠. 강한 햇볕과 모래 바람 때문에 있던 햇볕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수염을 붙일 때 다른 배우들이 쓰는 일반 접착제를 사용하지 못해요”

앞으로 안길강은 강한 역할도 좋지만 별로 연기도 해보고 싶다고 수줍지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 강한 이미지 때문인지 주로 남성적인 분위기의 영화나 사극이 들어와요. 저도 멜로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선덕여왕’에서 중국에서 서라벌로 돌아와 실어증에 걸린 소화에게 손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멜로 연기도 하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하하”

연합뉴스

##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힘입니다!

### 창조의 에너지로 통합과 혁신의 르네상스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정찬용의 리더십** -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의 삶과 꿈

# 정찬용의 도전